

# 악플러에 징역형...日, 형법 개정 추진

### 모욕죄 공소시효 늘리고 형량 추가 1년 이하 징역·30만엔 벌금 처벌

일본 정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확산하는 인신공격성 중상비방(中傷非謗)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할 때 성립하는 모욕죄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일본 형법은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하거나 1만엔(약 10만원) 미만의 과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장관)은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에 모욕죄 법정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시해 의견을

을 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만엔(약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모욕죄에도 징역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법제심의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돼 국회를 통과하면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가미카와 법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은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계속 양산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모욕죄 엄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5월 TV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던 여자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22)가 악성 댓글(악플)에 시달린 끝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뒤 모욕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

성했다. SNS 공간에서 '죽여라', '징역' 등의 경멸적인 표현으로 기무라를 비방했던 남성 2명이 모욕죄로 9000엔(약 9만원)의 과료 처분을 받게 됐다.

SNS 공간에서 '죽여라', '징역' 등의 경멸적인 표현으로 기무라를 비방했던 남성 2명이 모욕죄로 9000엔(약 9만원)의 과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를 계기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해 사례를 적시하지 않고 혐담할 경우 성립되는 모욕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일면서 형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도통신은 1907년 제정된 이후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현행 일본 형법에 인터넷 보급에 따른 중상비방 대책을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코로나 딛고 1년여만에 문 연 미 브로드웨이 극장가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민스크오프 시어터에서 14일(현지시간) 공연이 재개된 뮤지컬 '라이언 킹'을 보기 위해 관객들이 극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브로드웨이 극장가는 코로나19 탓에 1년 넘게 문을 닫았다가 이날부터 공연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 미 전 대통령들 아프간 난민 돕는다

### 조지 부시·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정착 지원 '웰컴닷유에스' 명예의장

조지 부시·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돕는다. 이들 전 대통령과 그 부인들은 미국 280여 시민단체·기업·지도자급 인사 등이 결성한 아프간 난민 지원 그룹 '웰컴닷유에스(Welcome.US)'에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웹사이트에는 버락·미셸 오바마 부부, 조지·로라 부시 부부, 빌·힐러리 클린턴 부부 등 6명이 명예 공동의장으로 나란히 올라 있다.

웰컴닷유에스는 "새로운 아프간 이웃들의 재정착에는 전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너무 많은 분열의 시기에 이것이 공동의 목적을 위한 우리의 기회를 일깨워주려 전직 대통령 셋과 전 대통령 부인 셋이 리더로서 합류했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부시 행정부 관리 출신인 존 브리지랜드 공동 의장은 미국인들이 기부하거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빌려주는 등 난민 정착을 돕고 싶을 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일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 부부는 성명에서 "수천 명 아프간인 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와 함께 전방에 섰으며, 이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종료된 미국의 아프간 철군 과정에 탈출한 아프간인 수만 명이 이미 미국에 도착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미 정부·국제기구에 협력한 아프간인들로, 탈레반 통치하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피해 아프간을 떠났다. 웰컴닷유에스는 이민 문제가 미국에서 논쟁적인 현안이지만, 아프간 난민을 돕는 데에는 공화당·민주당 지지자들을 포함한 초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부기구(NGO), 참전군인 단체 등 다양한 단체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CVS헬스 등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 아프간발 홍역 비상...피란민 입국 잠정 중단

### 수용 피란민 6명 홍역 보고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최근 미국에 입국한 피란민 가운데 일부에서 홍역이 발생, 비상이 걸렸다. AP통신은 14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와 위스콘신주에 수용된 아프간 피란민 6명에게서 홍역이 발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0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아프간 입국자 일부에게서 홍역이 보고됐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를 받아 이들의 미국 입국을 잠정 중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8000명의 피란민을 수용중인 위스콘신주 포트 맥코이 기지에서 지난 5일 한 수용자가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지측은 확진자가 9월 4일 기지에 도착한 직후 증상을 확인했다면서, 당사자는 격리 상태로 잠재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은 홍역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에서는 지난 10일 홍역 환자 3명이 발

생했고, 이날 기준 환자수가 5명으로 늘었다.

버지니아 보건 당국은 델레스 국제공항과 두 개의 지역 병원을 포함해 이들에 대한 잠재적 접촉자들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발열, 코출, 결막염, 홍반성 반점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미국인은 어린 시절 백신 접종을 마친다. 켄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관련한 10일 브리핑에서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아프간 피란민은 입국 조건으로 홍역 백신 접종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AP가 확보한 정부 문서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입국 중단 조치로 아프간 피란민 주요 수용지 가운데 하나인 독일 람스타인 공군기지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문건은 또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발 입국의 중단 가능성도 언급했다. /연합뉴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10대들에 유해하다는 사실 알았다”

### WSJ, 내부조사 문건 입수

### 어린이용 앱 개발 추진 비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인스타그램 앱이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정치권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3년 동안 인스타그램이 젊은 사용자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심층 조사를 벌였다.

그때마다 내부 연구진은 인스타그램이 상당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WSJ는 전했다. 특히 10대 소녀들에 대한 악영향이 가장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지난해 3월 페이스북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프레젠테이션 파일에서 “10대 소녀의 32%가 ‘인스타그램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10대 여성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인플루언서들의 ‘완벽한 몸’을 보면서 더욱 좌절한다는 것이다. 앞서 2019년 연구에서는 “10대들이 불안과 우울 증가의 원인으로 인스타그램을 지목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체 조사 결과 영국 사용자의 13%,

미국 사용자의 6%는 자신의 자살 충동이 인스타그램 때문이라고 밝혔다.

WSJ는 페이스북의 최고위 경영진이 이러한 자체 조사 결과를 점검했으며, 지난해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도 브리핑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13세 이하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을 별도 개발하는 등 미성년 이용자 확대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어린이 정신건강 문제를 제기해온 로리 트레이젠(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즉각 어린이 인스타그램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며 페이스북이 기존 청소년 이용자 보호에 더욱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 네타냐후 전 총리 재판 증인, 의문의 경비행기 사고로 사망

재임 중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경쟁지 발행 부수를 줄이려 한 혐의를 받는 베냐민 네타냐후 전 이스라엘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전직 공무원이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전날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출발해 그리스 동부에 계해의 사모스섬으로 향하던 4인승 경비행기(세스나 C182)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경비행기에 탑승했던 이스라엘인 2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사망한 자국민 2명이 하임과 에스터 기론(이상 69세) 부부라고 밝혔다. 하임 기론은 이스라엘 통신부 부국장을 지낸 인물로 네타냐후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이라고 이스라엘 검찰청이 확인했다.

네타냐후 전 총리는 재임 중 최대 일간지 에디오트 아흐로노트 발행인 등과 막후 거래를 통해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경쟁지 발행 부수를 줄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재판에서는 네타냐후 전 총리가 현지 최대 포털 사이트 '월라'(Walla)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번 경비행기 추락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는 지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년에 이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5년 넘게 총리직을 수행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